



금융청, 방카슈랑스

불완전판매 규제 일부 완화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일본 금융청은 현행 대출신청 중인 개인소비자와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함.

- 금융청은 2001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은행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에게 보험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‘깍기’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완전판매 방지장치를 도입한 바 있음.
- 금융청(7월 6일)은 동 방지장치 중에서 대출신청 중인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‘타이밍 규제’와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(종업원 50인 이하) 임직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한 ‘모집제한 대상 규제’를 완화하였음.

■ 금융청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현재 은행 등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중에 있는 개인고객과 대출 중인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 일부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임.

- 이번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고객과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기존에 가입이 가능했던 신용생명보험 이외에 추가로 일시납 종신보험과 일시납 생사혼합보험, 적립상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져 보험상품의 선택 범위가 넓어짐.
- 다만, 이번 조치로 불완전판매 방지장치의 모든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아니며, 사업자금 대출신청 중인 법인고객과 신용대출 고객, 대출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그 대표자, 개인사업자, 대출중인 중소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함.
- 한편, 금융청은 2001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상품을 예금상품으로 속이고 판매한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시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임.
- 금융청은 이러한 방카슈랑스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 가을 중으로 시행할 예정임.

(요미우리신문 7/7, 산케이신문 7/6, 일본경제신문 7/6 뉴스 종합)